

보건담당자의 하루



대한방직(주)대전공장

신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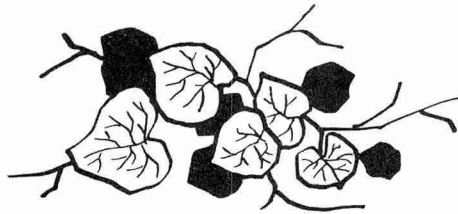
“선생님” 하며 부끄러운듯 주저하며 진료실을 들어서서 분홍빛 얼굴의 소녀. 사춘기의 그녀는 고민이 있는 양 식사도 못하고 잠을 잘 못이룬다고 호소를 한다.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하여 이것 저것 진찰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듯 하여 숨겨둔 비밀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였더니 한참이나 망설인 끝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다. 그녀와 같이 일하는 한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생긴 후로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몸이 아프다고 할 때면 그 친구가 찾아주는 것이 그렇게 좋을수가 없으며 그럴때는 아픈

것이 씻은듯 낫는다는 것이다. 그 친구를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 한다. 한시간 정도 상담을 한후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 했더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왔다. 어린나이에 부모님곁을 떠나 생활하는 소녀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듯 진료실을 찾는 환자는 마음의 병을 앓는 소녀들이 많이 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여 안정시킨후 야단을 치면 방긋이 웃으며 뒷걸음치며 달아나는 녀석들이 귀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휴가기간이 다가오면 어린 여동생을 보내는 마음처럼 걱정이 가득하다.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가지 말아라” 하는 말에 “선생님은 구식”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휴가기간이 끝나 건강히 그을은 모습대신에 심신의 상처를 안고 돌아올때 그 안타까움은 무엇에 비길까. 티없는 소녀에게 가해지는 심신의 상처는 그들에게 있어 영원한 것이어서 더욱 가슴 아프다. “선생님 전 앞으로 어떻게 하죠? 잘되기 위해 적금도 붓고 밤에는 학교에도 나가는데” 하며 우는 모습에 앞날을 포기할 듯 하여 따뜻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해결해 주곤 한다. 어린 소녀들이기에 대개는 빨리 아픈 기억을 잊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또 훌륭한 상대를 만나 행복해 하며 그를 자랑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그녀들이 나쁜길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음에 가슴이 뿌듯함을 느낀다.

회사의 보건관리업무를 맡기전에 가졌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게 되었다.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딛고 열심히 일하며 커가는 소

너들의 모습뿐 아니라, 남자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땀에 젖어 일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큰 사랑과 아내의 헬썩한 얼굴을 걱정하며 그들의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염 예방주사를 본인보다는 먼저 가족들에게 맞히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럴때 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좀더 많은 혜택을 주어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다. 지금 나의 진료실에는 얼굴이 창백한 예쁜 소녀가 아파하며 누워있다.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영양부족 증세로 쓰러진 것이다. 오랜 증상이라기에 위

사진도 찍어보고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눈물을 흘린다. 부모님께 보내 드리는 돈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며, 건강이 최고라고 야단도 치지만 이런 아름다운 효성을 이곳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기업이 보건관리업무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건강은바로 생산에 직결되는 것을 고려하여 좀더 나은 작업 환경과 기업부담의 진료혜택을 보건 담당자로서 희망한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보건」은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로자 및 보건관계자 회원은 물론 산업보건사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 산업보건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언, 건의
- 산업보건사업 현장 사례
- 산업보건담당자로서의 체험담, 추억담
- 시, 수필, 콩트등

* 보낼 곳 : 우편번호 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604-1

대한산업보건협회 편집실 (전화문의 593-0976, 0977)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